

욕심있는 퍼블리셔 정우민입니다.



정우민
Jeong Woomin
1997. 03. 31
만 20세
남성

연락처 010-4049-0334
이메일 project_woom@naver.com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학력사항

가온고등학교 2013. 03 ~ 2016. 02
계원예술대학교 2016. 03 ~ 2018. 02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수상경력

2017 계원예술대학교 조형제 우수작
201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국제 공모전 입선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분야

코드를 짜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플래시를 통해 처음 코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몇 줄을 통해 원하는 인터랙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방과 후 매일 플래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퍼블리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만의 세상, 다른 사람들만의 세상을 만들 때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퍼블리셔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퍼블리셔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HTML 마크업 언어를 CSS와 스크립트와 웹 표준에 맞게 구성해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드를 나열하고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웹사이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웹사이트는 이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의 재방문을 이끌어 내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랙션과 디자인을 가진 웹사이트가 좋은 웹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웹 접근성과 사용자의 편의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퍼블리셔입니다.

저는 꼼꼼하고 성실한 퍼블리셔입니다.

저는 제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오류를 쉽게 잡아내고, 다른 사람이 구성한 코드를 보고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이 제가 작업한 것을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플래시를 이용한 작업물 제작 경험과 임시미술 경력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해야 하는 퍼블리싱이라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욕심있는 퍼블리셔입니다.

저의 욕심은 배움에 대한 욕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마크업과 스크립트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릴 적 플래시를 직접 만들어보고 학교를 다니면서 유니티나 터치디자이너 같은 프로그램을 경험해 보았던 것도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제가 학습한 내용과 경험을 공유하고, 훌륭한 개발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저는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되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데이터베이스와 PHP도 학습했지만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HTML과 CSS, Javascript와 jQuery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니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 느낌입니다. 하지만 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겨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쪽 언어까지 습득한 후 단순히 퍼블리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풀스택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